

萬寶山 事件에 對하여

[동아일보] (1931년 7월 5일)

(주: 이 글은 '이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와 한 묶음으로 한국근대명논설로 선정되었음.)

1

萬寶山衝突事件을 單純하게 中國人의 朝鮮民 壓迫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淺慮의 甚한 者다. 좀더 冷靜·沈着하게 事態의 眞相을 捕捉하고 그 裏面에 潛在한 種種의 微妙한 關係를 靜觀한 뒤에 判斷을 내려야 한다. 하물며 이 事件을 曲解하고 無辜한 中國 在留民에게 暴行을 加하는 등의 일이라. 百步를 讓하여 일의 非가 全히 彼에 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것을 契機로 하여 朝鮮 在留의 中國人에게 報復的 暴行을 加하는 것은 一方 民族的 襟度の 缺如를 暴露하는 것인 同時에 一方으로 事態를 더욱 紛糾케 하고 自他の 損失을 擴大하는 것 뿐이다. 在外의 同胞가 危難에 있다는 報道를 듣고 이를 念慮하고 그들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 생각이 있음은 同胞의 뜨거운 사랑을 表現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方途를 잘못하고 그 目標을 어그러뜨린다 하면, 本來의 目的을 達치 못할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라. 昨今間에 仁川과 京城 등 各地에서 생긴 不祥事는 實로 痛嘆할 일이다. 同胞 諸位의 冷靜하고 賢明한 態度를 재촉코자 한다.

2

滿洲 朝鮮人의 問題는 奧地와 滿鐵沿線과를 區分하여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屢言한 바다. 다시 말하면 奧地의 農民問題가 單純히 朝鮮 農民 對 中國官民의 問題인 것의 反對로, 鐵道沿線의 問題는 여기다가 日本 警察力까지 加合한 三角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번 萬寶山問題로 말하면 바로 이 둘째의 境遇가 分明하다. 이미 日·中 兩警官隊의 衝突이 있는 것을 보아 疑心없는 길이오, 따라서 今日에 와서는 問題의 中心이 中國人의 朝鮮農民壓迫에 있다는 것보다도 日·中 警官의 衝突이라는 事實로 移轉되었다 함이 事實일 것이다. 詳報가 없으며 確斷을 내리기 어렵지마는 今日까지의 報道에 依하여 보건대, 原來 萬寶山開墾事業은 傳하는 바에 依하면, 日·朝·中·露 四個民族

의 舍資로서 中國人 地主와 契約하여 水田開拓을 目的으로 생긴 一大 企業이라 한다. 이 企業家들의 손으로 二百餘의 朝鮮農民을 移住케 하고 灌溉를 위하여 水路를 開拓한 것인데, 水路開拓時에 中國人의 土地를 侵犯한 것이 紛糾의 시작이라 한다. 그리하여 結局 抗爭의 對象은 中國人 地主對 企業家間에 일어날 것이나, 現場에서 水路開墾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農民이매 自然의 形勢로 朝·中 兩農民이 對峙하게 된 모양이다. 이 點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中國의 當路者에게 抗議할 것은, 移住 農民 二百은 事實上으로 애매하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單純히 企業家 對 中國官廳의 問題일 것이요, 小作農인 朝鮮農民은 何等의 直接 責任이 없는 것이다. 事態가 惡化하게 되매 日本領事館의 保護를 願한 것도 물론 彼等 企業家일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兩 警官隊의 正面 衝突까지 보게 된 것이다. 至於 兩方 農民의 衝突은 그 餘波에 不過하다고 볼 것이며, 事態에 對한 理解가 不充分한 盲目的 行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이와 같이 微妙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이 事件에 對하여, 輕率히 事態를 誇張하고 抗爭을 擴大케 하는 듯한 言辭를 弄함은 雙方의 感情을 挑發할 뿐으로 何等의 利益이 없는 일이다. 우리의 關心處는 오직 二百의 農民同胞다. 一, 二 企業家の 無謀한 行動으로 因하여 애매히 被害를 받는 그들의 애매함을 徹底히 主張할 것 뿐이다. 이에 대하여 朝鮮人은 朝鮮人의 立場에 있어서 慎重한 對策을 樹立할 必要가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갈 것은 事件의 真相을 알기도 前에 輕率히 行動한다거나 또는 問題의 正鵠을 混同誤認하여 禍근을 將來에 남기지 않도록 크게 注意할 바다.